

## 결혼시장에서의 가치 교환\*

김 용 학\*\* · 윤 호 영\*\*\*

본 연구는 결혼정보회사의 자료를 통해 결혼 시장에서의 가치가 어떻게 교환되는지를 탐색한다. 남녀는 각각 어떤 속성을 지닌 상대방과 결혼하고 싶어 하고, 결혼 상대를 탐색하는 만남의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호감은 어떤 조건에서 생겨나는지 살펴본다. 또한, 결혼에 성공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실제로 결혼에 성공한 경우 부부간의 경제력, 외모, 학력, 출신지역 등이 어떻게 엮어지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선호하는 결혼 상대자의 특성은 상호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남성의 높은 소득을 선호하고, 남성은 여성의 예쁜 외모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실제 결혼 사례들을 보면 남성은 자신의 외모등급보다 낮은 외모 등급을 받은 여성과 결혼하는 반면, 여성은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남성과 결혼하여 선호달성의 비대칭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에서 남성의 소득과 교환되는 재화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인상등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의 신장이 클수록 높은 연봉의 남편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단어:** 결혼시장, 동질혼, 이질혼, 교환이론, 결혼 조건

### I. 서론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통상 남녀 간의 사랑으로 맺어지지만, 구혼자는 자신에게 부족한 속성을 결혼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는 결혼 시장이라는 시장적 상황에 스스로 진입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sup>1)</sup>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여 결혼 상대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재화를 결혼시장에 등록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화를 등록한 상대방 중에서 결혼 상대자를 찾겠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에서 재화의 교환이 일어나듯이, 결혼 시장에서도 재화의 가치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 본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28).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교신저자) | yhakim@yonsei.ac.kr

\*\*\* 위스콘신대학교 언론학과 박사과정 | hyoon43@wisc.edu

결혼을 재화교환 관계로 설명하는 교환이론은 주로 남성의 소득과 여성의 외모가 교환된다고 본다. 소득이 높은 남성이 외모가 뛰어난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이다. 즉, 결혼한 쌍에서 남성의 소득은 여성보다 높고 여성의 외모수준은 남성의 외모수준 보다 더욱 뛰어난, 소득과 외모에 따른 이질혼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 만약 남성의 신장보다 여성의 신장이 크다면, 신장에 따른 이질혼 역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질혼은 이질적인 가치들이 상호 교환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특징이 서로 상반되어 교환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교환이론은 이질혼 뿐만 아니라 같은 재화가 등가 교환되는 동질혼에서도 가치 교환은 일어난다고 본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결혼해야 사회적 안정감과 지속적인 애정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도 재화가 등가로 교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가 교환의 결과로 동질혼이 발생하게 된다.

교환이론은 대개 개인의 선호에 따라 가치가 교환되는 경우를 주로 다루지만, 가치 교환은 개인적 선호가 아닌 구조적인 효과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질혼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누구나 자신보다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경쟁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결국은 자신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Kalmijn, 1998).

즉, 결혼을 이질혼/동질혼이라는 가치교환의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만남 이전에 개인들이 선호하는 가치에서부터 출발하여, 만남 및 결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심층적으로 보아야 한다. 가치 교환이 개인적인 선호의 결과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효과에 의한 것인지 결과만으로는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혼이란 적절한 상대방을 고르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견주는 과정(Kalmijn, 1998:400)이기 때문에, 여러 사회적, 경제적 및 신체적 특성이 어떻게 맞물리는 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결혼은 결혼 당사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집단과의 관계성을 보여 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결혼 당사자들의 종교나 출신 지역이 달라 가족의 반대가 심해진다면, 동질혼은 사회 구조의 폐쇄성 또는 개방성의 잣대 역할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이명진, 2000; Rogoff, 1953; Parkin, 1974; Ultee and Lijckx, 1990; Smits, Ultee and Lammers, 1998). 최근 동질혼

1) 2007년에는 1,000억대 자산가가 데릴사위를 공개 구혼하여 화제가 된 바 있고, 2009년에는 200억대 자산을 보유한 여성이 공개구혼에 나섰으며, 100억대 자산가 어머니가 딸과 결혼할 한의사를 공개 모집하는 등 결혼상대자에 대한 뚜렷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김민수, 2007; 조선일보, 2009).

에 관한 연구들이 결혼을 주로 세대내 또는 세대 간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다루고 있는 것도 개인 간의 결혼이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효과에 주목하는 예이다(차중천, 1990; 장상수, 1999).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자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득, 직업지위 및 교육에 한정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동질혼을 살펴본 아쉬움을 남겼다. 결혼에서의 가치 교환을 논의하면서, 소득이나 학력, 직업 이외에도 외모의 중요성이나, 고향이나 종교 등에서의 동질혼/이질혼 정도도 함께 분석하여 결혼연구의 지평을 넓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 정보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시장에서의 가치 교환의 동학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개인이 기피하는 대상과 선호하는 대상, 그리고 만남이후의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등 다양하면서도 매우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가 정확하다는 말은 결혼정보회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회사에 의해 검증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령 소득이나 학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류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연구는 결혼시장에서의 가치 교환을 소득, 외모, 학력, 종교 및 고향의 다섯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결혼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가치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실제 만남의 과정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으로 과연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혼에 성공한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가치교환의 구조적 경향성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질문

결혼에서의 교환이론은 카스트 제도 안에서 낮은 계급에 속한 미모의 여성이 높은 계급의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출발하였다(Davis, 1941; Merton, 1941). 교환이론은 시장에서 재화가 교환되듯이 개인적 속성과 가치가 교환되는 결혼 또한 시장의 속성을 갖는다고 보고(Taylor and Glenn, 1976; Becker and Becker, 1991), 지위가 높은 남성이 신체적 아름다움이 뛰어난 여성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것과 경제력이 높은 남성이 가사 노동력이 뛰어난 여성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두 가지 경향을 예측한다(Rosenfeld, 2005). 첫 번째 경우는 남성이 매력적인 여성을 동반자로 선택함으로써, 자기 만족감을 높이고 남들에게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남성이 자신의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력을 가정 안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경제활동을 더욱 극대화하려는 의도에 맞추어

져 있다.

결국 교환이론에서 제시하는 결혼의 형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높은 남성 상위 형태의 '소득 이질혼'과 여성의 외모가 뛰어나고 남성의 외모는 뛰어나지 않은 비대칭적인 '외모 이질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현상은 남녀 모두가 경제력과 외모를 적극적으로 교환한 결과로 나타난다. 또 다른 형태는 소득에 따른 이질혼은 유지되지만, 외모에 따른 이질혼이 나타나지는 않는 경우이다. 이 때, 남성은 자신의 경제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가사 노동력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모가 뛰어난 여성을 굳이 선호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육아와 같은 집안일 및 이른바 내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남성은 여성의 외모보다는 여성의 종합적인 교양 및 결혼 생활에서의 사회적 안정감을 더욱 고려할 것이 때문에, 소득과 달리 학력, 종교 및 지역과 같은 변수에서 동질혼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다른 논의로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달한 동질혼에 대한 연구가 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남성은 자신의 경제력을 여성의 외모와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자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여성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치열한 경쟁 압력 때문에, 가장 적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적은 자원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적은 사람들끼리 순차적으로 연결되면서 동질혼이 나타난다는 것이다(Kalmijn, 1998). 이 경우 경쟁은 동일한 선호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선호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들을 비슷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게 만드는 제약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구혼자들은 상대방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높을수록 더욱 호감을 드러내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의도하지 않은 거시적 결과로서 동질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상호간 보상의 역할을 하는 상이한 가치의 교환이 아닌 동일한 가치의 등가 교환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결혼에 이르는 요인과 동질혼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특히 경제적 자원이 결혼에 미치는 남녀간 영향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남성에게 경제적 자원은 결혼에 이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여성에게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홍준·현성민(2010)은 여성의 경우 경제적 자원이 기회비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윤자영(2012)의 경우는 여성이 취업중이고 정규직이면 결혼시기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성낙일·조동혁(2010)의 연구는 여성 연상혼을 분석하면서, 여성 연상혼의 경우 여성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남성보

다 우월할 때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는 교환가치로서의 소득의 중요성 및 교환이론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질혼과 관련되어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교육수준에 따른 동질혼 추세를 남녀불평등지수와 관련지은 연구(이명진, 2000: 200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은 상대적으로 경직된 모습을 보이면서 남성 지위가 여성지위보다 낮은 경우를 억제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향 결혼의 추세를 살펴본 연구(조동혁·박선권·성낙일, 2011)에 따르면, 교육 수준과 달리 동향 결혼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즉, 국내의 연구들은 대개 교환이론이 보여주는 소득의 교환가치를 확인시켜주고는 있으나, 실제로 소득이 어떠한 가치와 교환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자료상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기존 결혼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결혼한 결과의 자료만을 분석한 이유는 선호-만남-결혼의 전 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남녀가 결혼상대자를 만날 때 중요하게 평가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러한 가치를 충족시키는 상대방을 실제로 좋아하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결혼에 도달하는데 어떠한 구조적 조건들이 작용하여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개의 분석의 경우 대수선형모형의 한 가지 분석을 하거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생존 함수 분석 등을 대수 선형 모형과 결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취약했던 부분을 결혼정보회사의 자료를 통해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방법론상으로 회귀분석, 대수선형모형분석 및 조건부 회귀분석 모두를 사용하여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글의 자료는 선호→만남→호감→실제 결혼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자료에 근거하여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결혼시장에 남녀가 선호하는 가치는 얼마나 다르며 실제 결혼에서 가치가 어떻게 교환되는가? 소득과 외모 학력 종교 지역 등 중요 변수 각각에서 누가 교환이 나타나는지 (동질혼), 아니면 각각의 변수들이 교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질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둘째,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갖게하는 상대의 조건과 나의 조건은 무엇이며 결혼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조건은 무엇이며 각 조건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가? 끝으로 결혼시장에서 결혼에 성공한 경우 남편의 소득과 교환되는 여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 Ⅲ. 자료 및 분석 방법

#### 1. 자료 및 변수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4년 현재 S 결혼정보 회사의 자료로서, 개인 신상, 회원 간 만남 및 결혼 성사 여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가입 회원은 필요한 경우 자신이 기입한 개인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사방법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 없는 정확하고 자세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의 경우 본인의 실제 소득 금액을 기록하고 이를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할 때,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소득을 누락시키려는 동기가 작용하지만, 결혼 시장에서는 입증 가능한 한 소득을 부풀리려는 동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 자료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학력의 경우도 졸업증명서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설문 조사의 학력 자료보다 훨씬 더 정확할 뿐만 아니라 소위 명문 대학 출신인지도 나타난다.

특히 이 자료가 특별한 점은 일반적으로 수치화하기 힘든 남녀의 외모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매겨 놓은 것이다. 결혼정보 회사의 훈련된 커플 매니저는 인터뷰를 통하여 가입자의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을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정규 분포를 갖도록 부여하고 있다. 결혼에서 남성과 여성의 외모가 중요하다는 수많은 논문은 있었지만 실제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거의 유일한 논문의 경우도 지역신문에서 다룬 혼인 기사에 등장한 사진으로 외모를 평가한 후, 남녀의 교육수준과 상대방의 외모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에 그치고 있다(Stevens, Owens and Schaefer, 1990). 그러나 본 논문은 숙련된 커플매니저가 평가한 '인상등급'에 기반하여 만남에서의 호감에서부터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외모가 갖는 중요성이 얼마인지를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

가입신청서 제출 시 작성해야 하는 입회원서를 보면, 본인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http://goo.gl/t7KBYf> 참조). 회원들은 외모나 학력 소득 등의 요인이 결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가입원서에 표시하고 있으며, 결혼대상으로 기피하는 출신 지역이나 혈액형, 장남 기피 등 민감한 사항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회사의 자료는 만남의 과정에서 결혼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사항을 모

두 기록하고 있다. 누가 누구와 만났으며, 만남이후 상대방에 대한 호감/비호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 누구와 결혼이 이루어졌는지, 몇 번째로 만난 사람과 결혼에 이르렀는지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연구 자료는 총 17,206명(남성: 8,154, 여성: 9,052)을 대상으로 한 자료로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 식별번호를 갖도록 익명처리 한 후에 사용되었다. 자료에 포함된 사람들의 평균나이는 2004년을 기준으로 남성 34.3세, 여성 30.7세이며, 결혼한 사례(결혼예정 포함)는 제공된 총 사례 수의 10.8%로 집계되었다.<sup>2)</sup>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표 1>과 같다. 범주형 변수는 경우에 따라 척도형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대개의 분석에서 범주내 등급의 수는 제시한 바와 같이 사용되었으나, 대수선형 분석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칸을 줄이기 위해 등급의 수가 축소 조정되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를 보고할 때, 척도형이 아닌 연속변수로 다루거나 범주형 및 이항 변수로 다룬 경우는 분석결과 표에 표기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결혼 연구의 자료가 가질 수 있는 자료의 정확도와 변수의 다양성 등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자료이지만, 각 개개인이 결혼회사에 자신을 등록하는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들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자기선택의 오류(self-selection bias)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자료가 모아진 당시 80만원의 입회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형태 및 구분

변수	형태	구분						
		1	2	3	4	5	6	7
소득(만원)	척도	≤17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척도	≤1700	≤2000	≤3000	≤4000	<4000		
인상등급	척도	E	D	C	B	A		
	범주	D, E	C	B	A			
학력	범주	고졸	전문대	대학교	석사	박사		
호감도	척도	1)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2) 만남을 고려하겠다			
		3) 한 번 더 만나보겠다			4) 맘에 든다			
결혼	이항	1) 만남 상대방과 결혼 성공			2) 결혼 실패			
종교	범주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고향	범주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신장, 체중, 나이	연속							
결혼조건 중요도	척도	전혀 안 중요	별로 안 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2) 결국치 때문에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분석이 동일한 사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조진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총 9,916명(남성:5,304명, 여성:4,612명)이 가진 47,997번의 만남이지만, 남녀간 만남을 대수선형 모형으로 분석할 소득 변수는 38,377번의 만남, 외모(인상지수) 변수는 46,932번의 만남에 기초하는 식이다.

비를 부담할 수 있는 중산층 중심의 자료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결혼을 대표하는 표본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결혼 시장의 소개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경향성을 살펴보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한다.

## 2. 연구방법

분석은 먼저 남녀가 선호하는 가치들이 무엇이며, 이들 가치의 남녀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회원들은 입회서에 배우자의 경제력, 외모, 학력 등이 결혼 선택에 얼마나 중요한지 기록하고 있다(<http://goo.gl/t7KBYf> [그림1] 참조). 이어지는 회귀분석에서는 소득, 인상, 학력, 종교 및 고향 등의 다섯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이들 변수들이 남녀가 만남 이후 상대방에 대해 갖는 호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것이다.<sup>3)</sup>

두 번째로 앞선 다섯 가지 변수 각각에 대해 대수선형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에서 이질혼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동질혼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기존 연구들도 통혼표 분석을 하면서 대수선형모형을 사용한 바 있다. 대수 선형 모형은 ‘확률 비율’(odds-ratio)이라는 직접 해석 가능한 계량 수치를 제공하고, 적합도 검사(goodness of fit test)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동질혼/이질혼’의 정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n(F_{ij}^{RC}) = \lambda + \lambda_i^R + \lambda_j^C + \sum_{m=1}^M \phi_m \mu_{im} \nu_{jm} + \sum_{i=1}^I \delta_{ij} d_i, \quad i = j \rightarrow \delta_{ij} = 1, \quad i \neq j \rightarrow \delta_{ij} = 0^4)$$

일반 모형을 나타내는 위 식을 보면,  $d_i$ 가 각 변수에서 발생하는 동질혼의 정도를 측정하는 모수가 된다. 이러한 모형으로부터 우리는 사회-경제적 변수에서 동질혼 또는 이질혼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본 글에서 대수 선형 모형 분석을 남녀사이의 만남의 교차표와 실제로 결혼한 사례의 교차표 분석에 모두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결혼 정보회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도록 만남의 기회 자체를 구조화시켜 놓았다면, 무작위한 만남으로부터

3) 호감도 변수는 만남에 대한 의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변수들의 조합에 의해 특정한 값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OLS 회귀분석보다는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이 적합하지만 많은 변수들의 조합으로 인해, 해석상의 복잡성이 크므로 OLS 회귀분석을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4) 교차표의 셀 위치  $ij$ 의 로그 예측빈도를 나타내는  $\ln(F_{ij}^{RC})$ 는  $\lambda + \lambda_i^R + \lambda_j^C$ 와 같이 전체 평균 및 행 변수 주효과와 열 변수 주효과에 한계효과로서  $\sum_{m=1}^M \phi_m \mu_{im} \nu_{jm} + \sum_{i=1}^I d_i$ 이 합산되는데, 이 때  $\sum_{i=1}^I d_i$ 는 대각선의 셀들의 값이 대각선에 놓이지 않은 셀들에 비해 가지게 되는 예측 빈도를 계산하게 된다.

동질혼이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람끼리만 소개시킨다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뜻이다.

실질적인 분석에 있어서 포아송 비율 대수선형 회귀분석이 만남의 기회 구조를 통제하여 동혼표를 분석하는 데 최상이기는 하지만, 전체 결혼 성공률이 낮은 관계로 인해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분석 단위를 사람으로 놓으면 결혼에 도달한 사람은 10%로 나타나지만, 분석 단위를 만남으로 할 경우 결혼 성공률이 각 변수에 따라 최대 1.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이 만남을 통제된 3차원 교차표를 분석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이 글에서 주로 쓰인 대수선형 모형의 명칭과 형태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고향과 종교의 경우는 척도의 의미가 없는 범주 변수이기 때문에 동질혼 대칭 모형과 [그림 1]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완전 동질혼 모형<sup>5)</sup>의 2가지 모형만을 사용하였다. 소득, 외모 및 학력 변수에 쓰인 대수선형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한 6가지의 모형과 더불어 4개의 모형 - 독립모형, 단일관계(uniform association) 모형, 열 효과 모형, 그리고 행 효과 모형 - 을 추가해 10개의 모형을 추정한 후,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았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각 교차표에서 행은 남성이고 열은 여성을 의미한다. 대수 선형 모형 분석이 가진 한계는 교차하는 셀에 0값이 많으면 전체적인 모형 추정이 어렵고, 과산포(overdispersion)의 문제로 인해 추정된 계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0셀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0.5를 더하여 추정하였고, 과산포 문제는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를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지면의 제한상 대수 선형 모형 분석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는 모형적합성 테스트내용은 부록으로 온라인에 제시하고(<http://goo.gl/t7KBYf>), 여기서는 가장 적합한 모형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결혼 성공의 전제 조건인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누가 누구에게 호감을 갖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만남의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찰 사례의 비독립성 문제였으며, 두 번째 문제는 만남은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독

5) 완전 동질혼 모형을 [그림 1]의 동질혼 대칭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하면, 완전 동질혼 모형은 동질혼 대칭 모형의 1값들이 0으로 되고, 0값은 각각 대각선을 따라 1, 2, 3, 4, 5 등의 상이한 계수를 갖도록 세운 모형이다.

립 변수의 상호 작용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남자의 사회적 속성과 여자의 사회적 속성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호감을 느끼는지를 설명하려면, 남녀 각각의 속성이 상호작용하는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여태까지 주로 사용되던 방법은 상대에 대해 느끼는 호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 변수를 남자의 속성, 여자의 속성, 그리고 두 변수를 곱하여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어 이들을 모두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호작용 변수에 추정된 계수가 비선형적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계수를 해석하는 것이 직관적이지 않고, 독립 변수가 너무나 많아서 패턴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리경제학자 맥파든(McFadden 1973)은 조건부 로짓 회귀 분석 방법을 고안한 바 있는데, 이 모델은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지만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보통 구매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구매자의 속성과 상품의 속성이 동시에 작용하여 구매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가령 벤츠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부유층이라는 속성을 갖지만, 구입 대상으로 고려한 여러 개의 다른 차 중에서 벤츠가 선택된 이유에는 자동차의 성격이 작용한다. 같은 속성을 갖는 구매자를 모아 놓는다면, 이들이 특정한 차를 구매하는 것은 차의 특성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림 1] 분석에 사용된 대수 선형 모형

동질혼 대칭모형	동질혼 비대칭모형																																																		
<table border="1"> <tr><td>0</td><td>1</td><td>1</td><td>1</td><td>1</td></tr> <tr><td>1</td><td>0</td><td>1</td><td>1</td><td>1</td></tr> <tr><td>1</td><td>1</td><td>0</td><td>1</td><td>1</td></tr> <tr><td>1</td><td>1</td><td>1</td><td>0</td><td>1</td></tr> <tr><td>1</td><td>1</td><td>1</td><td>1</td><td>0</td></tr> </table>	0	1	1	1	1	1	0	1	1	1	1	1	0	1	1	1	1	1	0	1	1	1	1	1	0	<table border="1"> <tr><td>0</td><td>2</td><td>2</td><td>2</td><td>2</td></tr> <tr><td>1</td><td>0</td><td>2</td><td>2</td><td>2</td></tr> <tr><td>1</td><td>1</td><td>0</td><td>2</td><td>2</td></tr> <tr><td>1</td><td>1</td><td>1</td><td>0</td><td>2</td></tr> <tr><td>1</td><td>1</td><td>1</td><td>1</td><td>0</td></tr> </table>	0	2	2	2	2	1	0	2	2	2	1	1	0	2	2	1	1	1	0	2	1	1	1	1	0
0	1	1	1	1																																															
1	0	1	1	1																																															
1	1	0	1	1																																															
1	1	1	0	1																																															
1	1	1	1	0																																															
0	2	2	2	2																																															
1	0	2	2	2																																															
1	1	0	2	2																																															
1	1	1	0	2																																															
1	1	1	1	0																																															
확장 동질혼 비대칭모형	주변부 확장 동질혼 모형																																																		
<table border="1"> <tr><td>0</td><td>0</td><td>2</td><td>2</td><td>2</td></tr> <tr><td>0</td><td>0</td><td>0</td><td>2</td><td>2</td></tr> <tr><td>1</td><td>0</td><td>0</td><td>0</td><td>2</td></tr> <tr><td>1</td><td>1</td><td>0</td><td>0</td><td>0</td></tr> <tr><td>1</td><td>1</td><td>1</td><td>0</td><td>0</td></tr> </table>	0	0	2	2	2	0	0	0	2	2	1	0	0	0	2	1	1	0	0	0	1	1	1	0	0	<table border="1"> <tr><td>0</td><td>1</td><td>3</td><td>3</td><td>3</td></tr> <tr><td>1</td><td>0</td><td>1</td><td>3</td><td>3</td></tr> <tr><td>2</td><td>1</td><td>0</td><td>1</td><td>3</td></tr> <tr><td>2</td><td>2</td><td>1</td><td>0</td><td>1</td></tr> <tr><td>2</td><td>2</td><td>2</td><td>1</td><td>0</td></tr> </table>	0	1	3	3	3	1	0	1	3	3	2	1	0	1	3	2	2	1	0	1	2	2	2	1	0
0	0	2	2	2																																															
0	0	0	2	2																																															
1	0	0	0	2																																															
1	1	0	0	0																																															
1	1	1	0	0																																															
0	1	3	3	3																																															
1	0	1	3	3																																															
2	1	0	1	3																																															
2	2	1	0	1																																															
2	2	2	1	0																																															
남성(여성)상위모형1	남성(여성)상위모형 2																																																		
<table border="1"> <tr><td>1</td><td>0</td><td>0</td><td>0</td><td>0</td></tr> <tr><td>2</td><td>1</td><td>0</td><td>0</td><td>0</td></tr> <tr><td>3</td><td>2</td><td>1</td><td>0</td><td>0</td></tr> <tr><td>3</td><td>3</td><td>2</td><td>1</td><td>0</td></tr> <tr><td>3</td><td>3</td><td>3</td><td>2</td><td>1</td></tr> </table>	1	0	0	0	0	2	1	0	0	0	3	2	1	0	0	3	3	2	1	0	3	3	3	2	1	<table border="1"> <tr><td>1</td><td>0</td><td>0</td><td>0</td><td>0</td></tr> <tr><td>6</td><td>2</td><td>0</td><td>0</td><td>0</td></tr> <tr><td>6</td><td>6</td><td>3</td><td>0</td><td>0</td></tr> <tr><td>6</td><td>6</td><td>6</td><td>4</td><td>0</td></tr> <tr><td>6</td><td>6</td><td>6</td><td>6</td><td>5</td></tr> </table>	1	0	0	0	0	6	2	0	0	0	6	6	3	0	0	6	6	6	4	0	6	6	6	6	5
1	0	0	0	0																																															
2	1	0	0	0																																															
3	2	1	0	0																																															
3	3	2	1	0																																															
3	3	3	2	1																																															
1	0	0	0	0																																															
6	2	0	0	0																																															
6	6	3	0	0																																															
6	6	6	4	0																																															
6	6	6	6	5																																															

주: 여성 상위모형의 경우는 행이 여성, 열이 남성.

결혼에 이르는 과정도 이와 같은 구매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부자가 고급 승용차 벤츠라는 브랜드 안에서 어떤 모델을 구매하는지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는가 안하는가의 선택은 자신과 상대방이 가진 여러가지 속성들 및 만남에 의한 호감도 등 여러가지 조건에 의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조건부 회귀 분석은 이 때 동일한 속성을 갖는 결혼 대상자라는 집단을 통제하여, 이들이 상대방의 조건들을 어떻게 조합하면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추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인상등급이 높은 여성들만을 놓고 이들이 만나는 여러 명의 남성들 중에서 자신보다 경제력이 높으면서 인상등급이 높은 남성을 결혼 대상으로 선택하게 되는 확률상의 비율을 살펴보는 식이다. 이런 방법은 각 여성들의 속성을 통제하지 않거나 만남이 이루어진 남성들 중에서 선택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는 것보다 더욱 정확하다.

## IV. 분석 결과

### 1. 결혼조건 및 호감도

회원들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무엇이 결혼을 위해 중요한 조건인지를 “매우 중요”에서부터 “전혀 중요하지 않음”의 다섯 단계로 표시한다. <표 2>는 이들 중요도에 대한 남녀 간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남녀 모두 중요시하는 정도가 높은 항목들은 성품, 종교, 예의의 순서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종교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시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외모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제력과 직업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무척 높아서 남성에 비해 한 단계나 높다. 여성들은 상대방의 학력, 가족분위기, 가족 경제력, 직업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남성을 앞지르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이 남성보다 결혼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내세우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상대의 나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실제로 이들이 만남을 가졌을 때 상대방이 지닌 객관적인 신체적, 사회적 속성이 이들의 상대에 대한 호감도에 얼마나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남녀는 데이트를 한 직후에 각

<표 2> 항목별 결혼 조건으로서의 중요도에 대한 남녀차이<sup>1)</sup>

	사례수		평균		평균차 (남성기준)	p값
	성	여성	남성	여성		
외모	1,169	1,255	4.287	3.839	0.448	<0.001
나이	1,114	1,213	3.826	3.743	0.083	0.006
경제력 <sup>2)</sup>	1,068	1,269	3.648	4.609	-0.961	<0.001
직업 <sup>2)</sup>	1,092	1,275	3.790	4.616	-0.825	<0.001
학력 <sup>2)</sup>	1,087	1,242	3.644	4.254	-0.610	<0.001
가족분위기	1,047	1,229	3.690	4.174	-0.485	<0.001
종교	1,131	1,256	4.330	4.543	-0.213	<0.001
성품	1,153	1,259	4.652	4.787	-0.135	<0.001
가족경제력	1,050	1,192	3.728	3.862	-0.197	<0.001
취미	902	1,089	3.336	3.440	-0.104	0.011
예의 <sup>2)</sup>	1,121	1,231	4.343	4.356	-0.013	0.621
형제순위 <sup>2)</sup>	991	1,133	3.563	3.613	-0.049	0.232

주: 1) 각 변수에 대한 결측치 제외.

2) 이분산 t-test.

각 상대에 대한 호감도를 결혼정보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새로운 만남을 주선할지를 판단한다. <표 3>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상대방에 대해 느낀 호감도를 상대방이 느낀 호감도와 함께 상대방과 자신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특징에 대해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표 3>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상대방의 호감도가 본인의 호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만남에서 상대가 자신에 대해 호감을 느낄수록,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역시 상승하였고, 이는 남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객관적인 조건보다도,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면 나도 그에 대한 호감이 생기게 되는 주관적인 과정이 제일 중요하였다. 소득의 경우 남녀 모두 상대방의 연봉이 증가하면 호감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남녀 모두 가장 작아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낮았다.

한편 남녀 모두 상대방의 인상 등급이 낮아질수록 호감도가 감소하였지만, 남성의 경우 상대방의 인상등급이 낮아질수록 호감도가 여성의 경우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인상등급과 관련하여서는 남성의 경우 인상등급이 낮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만 인상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과 차이를 보이며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 상승한 반면, 여성은 자신의 인상 등급이 낮아질수록 호감도가 순차적으로 상승했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상대방의 인상 등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본인의 인상 등급에 대해서는 낮은 등급들에 속했을 때에만 다른 등급들과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무딘 것으로 나

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경우 상대방의 학력에 민감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최종학력이 낮아질수록 상대방의 호감도가 상승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학력은 상대방의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대방의 학력이 낮아질수록 상대방에 호감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학력이 낮아질수록 남성이 가지는 여성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하

<표 3> 만남 호감도 회귀분석 결과

	변수	남성			여성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상수	1.41	(0.65)		0.71	(0.60)		
상 대 방	인상 매우낮음 낮음 높음	-0.54***	(0.09)	-0.05	-0.48***	(0.07)	-0.06	
		-0.41***	(0.05)	-0.16	-0.35***	(0.05)	-0.15	
		-0.28***	(0.05)	-0.11	-0.15***	(0.05)	-0.06	
	연봉 학력	고졸	0.00 †	(0.00)†	0.02	0.00 †	(0.00)†	0.02
		전문대졸	0.02	(0.04)		-0.25***	(0.04)	-0.08
		대졸	-0.00 †	(0.04)		-0.20***	(0.03)	-0.08
		석사졸	-0.06	(0.04)		-0.13***	(0.03)	-0.05
	나이 신장 체중 호감도	석사졸	0.03	(0.05)		-0.09**	(0.03)	-0.03
		나이	-0.02*	(0.01)	-0.03	-0.02***	(0.01)	-0.05
		신장	0.03***	(0.00)†	0.07	0.01***	(0.00)†	0.04
체중		-0.02***	(0.00)†	-0.06	0.01***	(0.00)†	0.03	
	호감도	0.36***	(0.01)	0.34	0.31***	(0.01)	0.34	
본 인	인상 매우낮음 낮음 높음	0.52***	(0.08)	0.06	0.21**	(0.08)	0.02	
		0.24***	(0.05)	0.10	0.19***	(0.04)	0.08	
		0.06	(0.05)		0.13**	(0.04)	0.05	
	연봉 학력	고졸	0.00 †	(0.00)†		0.00 †	(0.00)†	
		전문대졸	0.22***	(0.04)	0.06	-0.19***	(0.04)	-0.08
		대졸	0.13***	(0.03)	0.05	-0.06	(0.04)	
		석사졸	0.09**	(0.03)	0.03	-0.02	(0.04)	
	나이 신장 체중 동일 종교 동일 고향	석사졸	0.08*	(0.03)	0.02	-0.06	(0.05)	
		나이	-0.01	(0.01)		0.02***	(0.01)	0.05
		신장	-0.02***	(0.00)†	-0.05	-0.01***	(0.00)†	-0.03
체중		0.00 †	(0.00)†		0.01***	(0.00)†	0.03	
	동일 종교	-0.02	(0.02)		-0.03	(0.02)		
	동일 고향	0.01	(0.02)		-0.01	(0.02)		
	F값		97.80***			107.84***		
	$R^2$		0.13			0.14		
	조정된 $R^2$		0.13			0.14		
	사례수		16,905			16,884		

주: 1) \*  $p < 0.01$ , \*\*  $p < 0.01$ , \*\*\*  $p < 0.001$ , † 해당값은 0.000 미만.

2) 구체적 연봉은 척도나 범주형 변수가 아닌 연속변수(단위: 만원).

3) 인상등급은 '매우 높음' 기준, 최종 학력은 '박사졸' 기준.

4) 표준오차와 통계적 유의성은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White-Huber Robust 표준오차 및 T값을 사용.

는 반면, 학력이 낮아질수록 남성에 대한 여성의 호감도는 낮아졌다.

나이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상대방의 나이가 많을수록 호감도가 하락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본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호감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은 남녀 모두 상대방의 신장이 클수록 그리고 본인의 신장이 작아질수록 호감도가 상승하였다. 체중은 남성의 경우 여성의 체중이 작을수록 호감이 상승하고 본인의 체중은 관련이 없는 반면, 여성의 본인과 상대방의 체중이 증가할수록 호감도가 상승하였다.<sup>6)</sup> 마지막으로, 종교와 지역이 동일한지 아닌지의 경우는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결혼조건으로 같은 종교를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호감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혼의 조건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대한 개인 선호도 분석과 만남이후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 분석 결과는 세 가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첫째, 결혼의 조건과 만남에 의한 호감도가 상이하지만, 결국엔 소득이 서로 다르고 외모 등급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결합하는 두 종류의 이질혼이 동시에 나타남으로써, 교환이론의 예측대로 남성 소득과 여성 외모간의 보상 교환에 따른 결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 여성의 외모 등급이 높을수록 상대에 대한 호감도 역시 상승하였고,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력을 중요시하였지만 호감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학력을 제외하곤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호감도는 여러 사람을 두루 만나는 만남의 결과라는 점과 학력이 직업 및 연봉에 대한 2차적 지표라 한다면, 실제 결혼에서는 앞서 중요하다고 한 지표들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는 경우라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가능성은 결혼의 중요도보다는 만남의 결과인 호감도에 더욱 방점을 두는 형태의 외모의 동질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남녀 모두 상대방의 인상 등급이 높을수록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점에서 경쟁에 의한 구조적 효과에 의해 외모의 동질혼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가능성 역시 호감도를 중심으로 보는 경우로, 외모와 소득 두 가지 모두에서 동질혼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남녀 모두 소득과 외모등급이 높을수록 호감도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통혼표를 분석하기로 한다.

6) 체중은 대개 신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남성 체중에 대한 여성의 반응은 체격적 '긴장함'에 대한 호감도 상승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통혼표 분석

이 절에서는 결혼에 성공한 커플의 소득, 인상등급, 학력 등의 교차표를 대수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결혼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결혼하는지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대수선형 모형은 추정하는 계수를 많이 늘릴수록 자유도는 줄어들고 설명력이 높아지지만, 새로운 계수의 추가가 과연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높일 정도인지 검증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주어진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적합한지 살펴본 후, 새로운 계수 추가가 과연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높이는지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이전 모델에 건줘 자유도의 변화와  $G^2$ 의 변화가 계수를 추가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생기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sup>7)</sup> 이 과정을 모두 거쳐, 어떠한 모형이 통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모형인지를 찾아내어 해당 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http://goo.gl/t7KBYf> 참조).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결혼에서의 특정한 변수 사이의 관계가 드러난다면, 이것이 만남의 기회구조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즉, 결혼정보회사가 전략적으로 특정한 사람들끼리만 만나도록 주선한다면, 결혼의 구조는 만남의 구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남의 교차표와 결혼의 교차표를 모두 분석한 후, 두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 1) 소득 수준과 결혼

결혼정보회사가 만남을 주선할 때, 비슷한 소득 수준의 남녀만을 소개한다면, 동질혼 대칭 모형이 만남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만남에 대한 분석결과는 독립모형이 가장 효율적인 모형이어서 만남의 주선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소득수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goo.gl/t7KBYf>, <표 1>,  $G^2 = 25.6$ ). 그렇다면 주선된 만남의 교차표

7) 대수선형모형은 해당 교차표의 예측 빈도가 모형에 의한 추정치와 일치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게 되는데, 이 때 사례수가 충분히 많을 경우, 실제 빈도와 추정에 의한 빈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우도비를 통계치(Likelihood Ratio statistic)이 대략 해당 자유도에 따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모형의  $G^2$  값이 통계적으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경우, 해당 모형은 적합한 모형이 된다.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는 모형 선택과 관련된 지표로, 모형에 변수가 추가될때 모형의 우도비는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잃어버린 자유도의 효율성을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보조 지표이며, BIC가 적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본 분석에서는 BIC만으로 특정한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추정 계수를 추가하여 변화한  $G^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인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모형을 판단하였다.

&lt;표 4&gt; 동질혼 비대칭 모형 추정 계수 (소득)

소득수준 <sup>1)</sup>	추정계수	표준오차	Wald $\chi^2$	$P>\chi^2$	승산비
남성>여성	0.55	0.17	10.98	0.001	1.74
남성<여성	-1.18	0.26		<.0001	0.31

주: 1) 기준: 소득 수준이 남성=여성인 경우.

로부터 실제로 결혼에 성공한 사례들을 추출하여 통혼표를 만들고, 이에 대해서 대수선형 분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결과는 동질혼 비대칭모형(즉 이질혼)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우선, 만남의 교차표 모형에서 유의미한 모형은 독립모형과 행효과 모형이었다. 우도비 테스트를 통해 행효과 모형이 독립모형에 비해 효율적인 모형인지 살펴본 결과는 행효과 모형의 BIC는 독립모형의 BIC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행효과 모형을 통해 계수를 늘리는 것이 모형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었다.<sup>8)</sup> 따라서, 독립모형이 가장 효율적인 계수 추정 모형이 된다.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모형을 통혼표에서 찾아보니, 동질혼 비대칭 모형이 이전의 모형보다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동시에 BIC도 가장 높은 최적의 모형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한 동질혼 비대칭 모형의 추정 계수를 해석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소득 수준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남성의 소득수준이 여성보다 높을 경우가 1.74배나 결혼할 확률이 높아졌다 ( $p<.001$ ). 반면에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결혼할 확률은 0.31배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 $p<.001$ ).

## 2) 외모와 결혼<sup>9)</sup>

만남의 교차표를 인상 등급에 따라 대수선형 모형으로 분석하여 보면 행 효과 모형만이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http://goo.gl/t7KBYf>, <표 2> 참조). 남성들의 인상등급을 통제하면, 남성들은 대개 여성의 인상등급이 높아질수록 이들과의 만남의 빈도가 더 많이 많아졌다. 행효과 모형의 승산비(odd-ratio)는 인상등급이 D, E인 여성들과 만난 횟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C등급, B등급 및 A등급의 여성과 만난 횟수는 각각 2.18배, 3.88배, 6.48배나 더 많았다( $p<.0001$ ). 즉, 회사는 미모의 여성에게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결혼에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외모 등급에 따른 통혼표 분석결과는 여성 상위모형1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나, 남녀 인상

8) 자유도 변화량과 G2값의 변화량을 테스트한 결과에 기반. BIC는 변화량 테스트의 BIC가 아니라 모형의 BIC. 이러한 방식으로 이후 모형에서도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9) 5단계로 분류된 외모 등급은 D등급과 E등급을 합쳐서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lt;표 5&gt; 만남 및 통혼 교차표 최종 적합 모형 추정 계수 (외모 수준)

	외모 수준	추정계수	표준오차	Wald $\chi^2$	$P > \chi^2$	승산비
만남 <sup>1)</sup> (행효과)	여성외모 C 등급	0.78	0.07	115.70	<.001	2.18
	여성외모 B 등급	1.36	0.07	344.74	<.001	3.88
	여성외모 A등급	1.87	0.08	582.01	<.001	6.48
통혼 <sup>2)</sup> (여성상위)	남성외모>여성외모	1.20	0.30	15.8	<.001	3.35
	남성<여성(1등급)	-1.564	0.299	27.42	<.001	0.21
	남성<여성(2등급)	-3.886	0.702	30.61	<.001	0.02

주: 1) 기준: 외모 수준이 D,E 등급인 여성.

2) 기준: 남성 외모 수준 = 여성 외모 수준.

등급이 같거나 남자의 인상등급이 더 높은 경우가 여성의 인상등급이 남성보다 높은 경우에 비해 더 결혼할 확률이 높았다. 남녀 인상등급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인상등급이 높은 경우가 동일한 경우에 비해 3.35배 높은 반면, 여성이 남성보다 1등급 혹은 2등급 높은 경우는 각각 0.21배, 0.02배로 낮았다(<표 5>). 남녀 모두 만남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외모등급이 높을수록 호감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자신과 같거나 높은 등급의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르게 해석하면, 여성의 외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남성은 정작 자신보다 높은 인상 등급의 여성과 결혼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과 달라 신중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여성의 미모는 남성에게 특히 더 중요하기에, 미모가 높은 수준의 여성들을 남성들에게 더 많이 소개했음에도 남성들은 자신의 외모 등급보다 더 높은 인상 등급을 가진 매력적인 여성과 결혼하는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여성이 자신과 외모 등급이 같거나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남성과 결혼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외모라는 단일 변수에 대한 교차표를 분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즉 여성의 미모와 남성의 소득이 교환되는지는 이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결혼한 커플을 대상으로 여성의 미모에 대한 남성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 3) 학력 수준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만남의 교차표와 통혼 교차표를 분석한 결과 모두 동질혼 대칭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http://goo.gl/t7KBYf>, <표 3> 참조). 학력수준이 동일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61배 더 높았으나, 결혼정보회사가 주선한 학력 간 만남의 교차표 분석에서도 남녀 학력등급이 동일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93배 높은 동

<표 6> 만남 및 통혼 교차표 동질혼 대칭모형 추정 계수<sup>1)</sup> (학력 수준)

	학력 수준	추정계수	표준오차	Wald $\chi^2$	P> $\chi^2$	승산비
만남	남성 = 여성	1.369	0.577	5.64	0.018	3.93
통혼	남성 = 여성	0.960	0.424	4.89	0.027	2.61

주: 1) 기준: 남성학력 수준  $\neq$  여성학력 수준

일한 현상이 나타났다(<표 6>). 즉 동일학력간 결혼이 많은 이유는 만남의 기회 구조 자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수선형 모형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남성의 경제력과 여성의 경제력이 맞교환되거나 남성의 미모와 여성의 미모가 맞교환되기 보다는, 여성은 자신보다 높은 인상등급을 가지면서 경제력 역시 높은 남성과 결혼한다. 즉 남성이 여성의 외모를 강력하게 선호하지만, 이것이 잘 획득되지 않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둘째, 학력의 동질혼 경향이 존재하였으나, 이것은 비슷한 사람끼리 소개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정보회사가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유독 학력만 동질적인 사람들을 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학력간 동질혼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60~70년대에 흔히 보았던 대졸-고졸간 결혼은 지금은 거의 사라지게 된 것도 같은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 4) 종교와 고향

종교와 고향 변수는 지금까지 분석했던 변수들과 다르게 순차적인 등급을 적용하기 어려운 범주형 변수인 관계로, 동질혼 대칭 모형과 완전 동질혼 모형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종교를 살펴보면, 만남표와 통혼표 모두 동질혼 대칭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이었다(<http://goo.gl/t7KBYf> <표 4> 참조).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88배( $p<.01$ ) 높았으며, 결혼을 한 경우도 2.12배( $p<.01$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남의 횟수를 통제하면, 동일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13배로 약간 많은 정도였다.

고향에 따른 결혼 분포를 살펴볼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 의해 만남의 기회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약받는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고향에 따른 통혼표 분석에 이어서, 거주지를 통제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서울 지역 남성을 중심으로 고향에 따른 통혼표를 분석하였다. 지역에 살 경우 그 지역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서울에서는 타 지역 출신과 결혼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가정하고, 이 가능성과 실제 결혼을 비교하려는 전략이다.

<표 7> 같은 고향출신자끼리 결혼한 승산비

1. 전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서울	1.45					
경기		1.06				
강원			1.22			
충청				2.62		
호남					7.38	
영남						4.81
2. 서울 거주 남성 기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서울	1.35					
경기		1.62				
강원			2.03			
충청				1.84		
호남					5.12	
영남						0.99

주: 1) 모든 계수  $p < 0.001$ .  
 2) 제주지역은 동질혼 사례가 없으므로 제외.  
 3) 사례수: 392건.

고향에 따른 통혼표 분석은 완전 동질혼 모형이 동질혼 대칭 모형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표 7>을 보면, 고향이 같은 사람들 간의 결혼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서울 거주민들 사이에서도 유지되었다. 다만, 거주지를 통제하기 이전에는 영남지역 출신자들끼리의 결혼의 승산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4.8배 높았으나 거주 지역을 통제한 다음에는 0.99배로 대폭 낮아진다. 반면, 서울에 사는 호남 출신자들은 자기 지역끼리 결혼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1배로 가장 높았다. 호남 출신자들이 집단 내 결혼 성향이 가장 강하다는 사실은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용학·김진혁, 1992).

지금까지 한 대수선형 분석은 단일 변수에 대한 남녀 교차표를 분석했기 때문에, 결혼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얽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여러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3차원 혹은 4차원 교차표를 분석하는 것은 결측치가 되는 빈 칸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수 추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여러 변수들의 조합을 통한 분석을 시행한다.

### 3. 결혼의 조건

이 절에서는 먼저 결혼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교환이론에서 지적하는 중요한

재화 교환의 메커니즘, 즉 남성의 높은 소득이 구매할 수 있는 여성의 재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종속변수는 복수의 데이트 상대자 중에서 결혼에 성공했는지의 여부이다. 한 개인이 여러 명을 만난 후 결혼 대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개인의 속성과 상대의 속성 모두가 독립 변수로 활용된다. 분석에서는 남녀 각각의 소득 수준, 인상등급, 학력 등급, 호감도 뿐만 아니라 조작적으로 정의한 이분화한 변수도 모두 포함시킨 다음 유의미하고 중요한 변수만 찾아내는 단계별 분석(stepwise)을 했다.<sup>10)</sup> 예를 들어, 인상 등급의 경우 인상등급이라는 범주형 변수뿐만 아니라 앞서 분석결과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인상등급이 높은 경우를 범주화한 이항변수도 포함시켰다. 소득의 경우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수준이 1단계 이상 높은 경우, 그리고 2단계 이상 높은 변수를 이항변수로 만들어 조건부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8>은 단계별 조건부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변수들로만 구성한 분석 결과이다. 여기서 범주형 변수는 남성소득이 여성소득보다 2등급 높은 경우를 이분화한 변수이며 나머지 변수는 모두 척도형 변수이다. 흥미롭게도 남성소득이 여성소득보다 1등급 높은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천만원 미만의 소득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득차이가 나타나야 함을 뜻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혼에 성공하는 조건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변수는 의외로 단순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수입이 상당히 많아야 하며, 여성의 학력이 높으면 안 되고, 서로 간에 호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남성소득이 여성소득보다 2등급이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결혼 확률이 1.54배 높아진다. 남성의 호감도가 한 단계씩 상승할수록 이전 단

<표 8>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결혼의 조건

변수	자유도	추정계수	표준편차	카이자승	P값	승산비
남성소득-여성소득)2등급	1	0.43	0.15	8.25	0.004	1.54
여성 학력등급	1	-0.19	0.09	4.04	0.044	0.83
남성의 호감도	1	1.31	0.10	180.64	<.001	3.71
여성의 호감도	1	0.98	0.08	174.33	<.001	2.68

주: 1)  $L^2$ : 2188.830 사례수: 47997건의 만남.

2) 전체 모형 우도비: 1099.4 ( $p < 0.0001$ , 자유도 = 4).

3) 소득 등급은 7단계.

10) 단계별 분석이전에 남녀 각각의 속성만을 별개로 하는 모형, 앞서 분석 결과에 따른 변수들만을 가지는 학력 동질혼과 소득 이질혼을 포함하는 모형 등 다양한 모형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계에 비해 3.71배 결혼에 이르는 확률이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호감도 증가에 따라 2.68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성공하려면 남녀의 호감도 모두가 중요하지만, 남성의 호감도가 여성이 느낀 호감도에 비해서 결혼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앞의 절에서 만남 이후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 회귀분석을 했을 때, 남성의 호감도는 여성의 학력과 상관없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있어서는 여성의 학력등급이 높아질수록 결혼의 확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소득이 여성보다 높을 경우 결혼의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질문은 여성이 어떤 속성을 지닐 경우에 소득이 높은 남성과 결혼하였는가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어떤 여성의 속성이 남성의 소득과 관련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9>에 따르면, 인상등급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 등급에 있는 여성은 '낮음' 등급에 있는 여성보다 소득이 775만원 가량 높은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매우 낮음' 등급의 여성이 결혼한 사례가 6번에 불과하여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여성의 미모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이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한 남성 상대자의 소득이 상당한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신장이 1cm 커지면 남성의 연봉은 62만원 증가했다.<sup>11)</sup> 이러한 발견은 결혼시장에서 소득이 높은 남성이 키가 크고 예쁜 미모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향성을 구체적인 경제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무작위 표본에 따른 분석이라기보다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선택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로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결혼시장에 진입할 때는 남성 소득과 여성 외모의 보상 교환을 지지하지만, 실제 만남에서는 소득과 외모의 동질혼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복잡한 형태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 결혼에서는 원래 진입할 때의 보상교환이 다시 지지되는 형태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단일 변수로 구성된 통혼표 분석에서는 여성은 경제력이 높은 남성들이나 자신의 외모 동급보다 높은 수준의 남성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질혼에 따른 등가교환의 경우 학력과 종교에서 나타났으나, 학력은 만남의 기회구조자체가 같은 등급끼리 만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를 알 수 없었다. 종교와 지역은 동질혼의 경우가 더 많아 동일한 종교와 지역을 선호하였으

11) 여성의 나이가 높아질때 남성의 소득이 87만원 증가했지만, 순수 여성 나이의 효과라기보다는 남성 나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lt;표 9&gt; 결혼에 도달한 남성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eta$
상수	3737.28 ***	3704.75 ***	3576.08 **	-8654.59 *	
연봉	0.27 ***	0.25 ***	0.23 ***	0.18 *	0.12
여성 인상	매우낮음	-1031.67	-985.34	-775.60	
	낮음	-811.30 ***	-785.45 ***	-775.00 **	-0.28
	높음	-495.10 **	-488.87 ***	-470.63	
	고졸		-221.46	-271.55	
여성 학력	전문대졸		-223.91	-251.80	
	대졸		153.21	164.60	
	석사졸		-218.91	-321.55	
나이				87.44 **	0.16
신장				62.87 *	0.15
체중				-11.33	
F값	13.87 ***	6.5 ***	3.91 ***	4.24 ***	
$R^2$	0.03	0.06	0.07	0.1	
조정된 $R^2$	0.03	0.05	0.05	0.08	
사례수	406	406	406	394	

주: 1) 남성 소득 단위: 만원.

2) 남성 연봉 1억이 넘어가는 극단치를 제외.

나 실제 호감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어서 필요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남성 소득등급이 여성보다 2등급이상 높을 때 결혼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한 부부의 경우 여성 인상등급이 높으면 낮은 등급에 비해, 남성의 연봉이 775만원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결혼시장에서 나타나는 교환의 형태와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만남 이전에 밝힌 결혼 조건의 중요도로부터 시작하여, 만남의 호감도 및 통혼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을,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희망하는 선호가 결혼 시장 진입시 및 결혼에서 전반적으로 관찰되었으나, 남성은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외모 등급과 낮은 경제력을 가진 여성과 결혼한다. 같은 현상을 여성 입장에서 보면, 여성은 자신의 외모 등급보다 높은 수준의 잘 생긴 남성과 돈 많이 버는 남성과 결혼한다. 즉 바라는 것을 얻는 데에 남녀간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 학력, 종교 및 고향과 같은 변수에 따른 동질혼이 나타났으나 고향을 제외하면 동질혼은 만남의 기회가 동질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정보회사가 학력이 비슷하고, 종교가 같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결혼 성공확률을 높인다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 데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으로 객관적인 요인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식적인 통념을 숫자로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상대방을 두루두루 살펴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호감도 분석은 결혼 중요도에서 밝힌 점과 달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결혼은 결혼 중요도에서 예상한 남성소득-여성외모 교환가치가 지지되었다. 또한 상식적인 통념과 관련하여 상대의 미모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미모가 낮을수록 상대에 대한 호감이 상승한다는 발견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남녀 간에 얼마나 다를지에 대한 상식은 확실하지 않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 보다 상대방의 외모에 반응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상대의 미모에 민감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넷째, 남성에 비해 여성은 다각적인 면을 평가하지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의 소득이었다. 남성 소득이 여성보다 2등급이 높을 경우 결혼의 확률이 1.54배 높아졌다. 또한 만남에서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호감의 상호작용이 결혼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남성의 소득이 구매할 수 있는 여성의 재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외모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밝힌 대로 결혼한 부부의 경우, 인상등급이 높은 등급에 있는 여성의 경우 낮은 등급의 여성에 비해, 남성의 연봉이 775만원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미모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처음으로 계산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비록 한정된 시장의 한정된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이긴 하지만, 본 연구는 남성의 경제력과 여성의 외모가 교환된다는 통속적 상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할 확률이 떨어지고, 남성의 연간 소득이 여성보다 천만원 이상 높은 경우 (2등급보다 더 높은 경우)에 결혼할 확률이 1.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불평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화가 진행되면 소득의 동질혼이 나타난다는 이전의 논의로 미루어 볼 때, 소득의 동질혼이 나타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은 한국 노동시장의 조건이 결혼의 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결혼의 조건에 미치는 요인 등 노동시장과 결혼시장의 관계에 대한 더욱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저출산 시대의 결

혼 정책에 대한 더욱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하겠다.

결혼시장 진입부터 결혼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결혼과정에 가치부가연결고리(value added chain)가 작동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시장 진입 시에는 결혼 조건에 대한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한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조건을 내세운다. 만나는 과정에서는 조건들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살펴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보인다. 미모, 소득, 나이 등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이 중요하게 등장하지만, 만남을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이 자신의 호감과 연결되어 결혼 대상으로 심각하게 고민한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애초 결혼 중요도에서 여성이 중요시했던 남성의 높은 소득과 상호간의 호감만이 유효한 설명변수로 남는다. 가치부가연결고리에서 점차로 가치가 드러난 남성의 소득은, 마찬가지로 가치가 부가된 여성의 미모(인상등급과 키)와 교환되는 것이 결혼시장의 실상인 것이다. 물론 맨 마지막 단계까지 이어져온 남녀 간의 상호 호감이라는 마법 같은 개념은 통계적인 변수로서는 모두 설명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민수 (2007) “사위를 돈주고 사나! 1000억대 갑부 데릴사위 비난 빗발” 노컷 뉴스 6월 12일자.
- 김용학·김진혁 (1992) “지역감정의 관계적 분석: 결혼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4(여름호): 65-86.
- 성낙일·조동혁 (2010) “우리나라 여성연상 결혼의 경제적 요인: 실증 분석” 《한국인구학》 33(3): 1-30.
- 이명진 (2000) “한국 사회의 선택혼: 시기별 추이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34(여름호): 297-323.
- \_\_\_\_\_ (2002) “교육 수준별 혼인표의 비대칭성으로 살펴본 남녀불평등지수” 《한국인구학》 25(1): 33-50.
- 유홍준·현성민 (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 장상수 (1999) “한국 사회의 교육수준별 혼인 유형과 그 변화” 《한국사회학》 33(여름호): 417-448.

- 조동혁·박선권·성낙일 (2011) “우리나라 동향결혼의 변화추세와 결정요인: 실증 분석” 《한국인구학》 34(3): 109-138.
- 조선일보 (2009) “100억대 재산녀가 ‘한의사 신랑감’ 공개구혼 했다는데” 7월 18 일자.
- 차중천 (1990) “세대간 사회이동의 지역차이” 한국 사회학회 편 《한국의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193-212.
- Becker, G. S. and G. S. Becker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 Davis, K. (1941) “Intermarriage in Caste Societies” *American Anthropologist* 43(3): 376-395.
- Kalmijn, M. (1998) “Intermarriage and Homogamy: Causes, Patterns,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395-421.
- McFadden, D. (1973) “Conditional logit analysis of qualitative choice behavior.” *Frontiers in Econometrics* 105-142.
- Merton, R. K. (1941) “Intermarriage and the Social Structure” *Psychiatry* 4: 361-374.
- Parkin, F. (1974) “Strategies of Social Closure in Class Formation” pp. 1-18 in *The Social Analysis of the Class Structure*, edited by F. Parkin London, England: Tavistock.
- Rogoff, Natalie (1953) *Recent Trends in Occupational Mobility* Glencoe, IL: Free Press.
- Rosenfeld, M. J. (2005) “A Critique of Exchange Theory in Mate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5): 1284-1325.
- Smits, J., W. Ultee and J. Lammers (1998) “Educational Homogamy in 65 Countries: An Explanation of Differences in Openness Using Country-Level Explanatory Variab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2): 264-285.
- Stevens, G., D. Owens and E. C. Schaefer (1990) “Education and Attractiveness in Marriage Choic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1) (Mar., 1990): 62-70.
- Taylor, P. A and N. D. Glenn (1976) “The Utility of Education and Attractiveness for Female’s Status Attainment Through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3): 484-498.

Ultee, W. C. and R. Luijkx (1990) "Educational Heterogamy and Father to Son Occupational Mobility in 23 Industrial Nations: General Sociteal Openness or Compensatory Strategies of Reproduc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6: 125-149.

# Value Exchange in Marriage Market

*Yong-Hak Kim · Ho Young Yoon*

This study examines personal value exchange in marriage market. The data from marriage information company is used for this purpose. The purpose of our research is to reveal 1) personal attributes that are considered as important when people enter marriage market; 2) which personal attributes brings good feelings when people are dating; 3) whether those important factors increase the probability of marriage; and when couples are married, 4) whether systematic trends of homogamy or heterogamy is presented with relation to income, appearance, education, and region. Our analysis shows an asymmetry between male and female. While females want to marry male with high level income, males want to marry female with good appearance. However, the actual pattern of marriage shows that males fail to get their wants whereas females indeed marry males with higher level of income than the females. This result has led our final analysis of value exchange in marriage that has found the increase in income of husband i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s in female's height and the level of appearance.

**Key Words: Marriage Market, Homogamy, Heterogamy, Exchange Theory,  
Condition of Marriage**

